
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9.15.)

□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추석 민생안정대책] [농산물 유통구조 개선]

□ 새 정부 출범 이후

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
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

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
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.

이런 차원에서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

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첫째,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
○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.2만톤 공급하고,
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
최대 50% 할인토록 하겠습니다.

○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와 참여시장도
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
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둘째, 민생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겠습니다.

○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43.2조원 공급하고,
대출·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습니다.

-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kg당 8천원에 할인공급하고,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원 확대하며,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
- 셋째,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 - 9.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,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,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 - 공연·전시쿠폰도 1인당 발행 횟수를 늘리고, 비수도권 전용 공연·전시쿠폰의 할인폭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10월까지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,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관광교류, 기관별 현지행사, 특산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 - 코리아세일페스타, 동행축제,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.29일부터 11.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재정 이·불용 최소화,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님, 해수부 장관님, 중기부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.
(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, 중기부 장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